

Daily Auto Check

2021. 7. 21(Wed)



자동차/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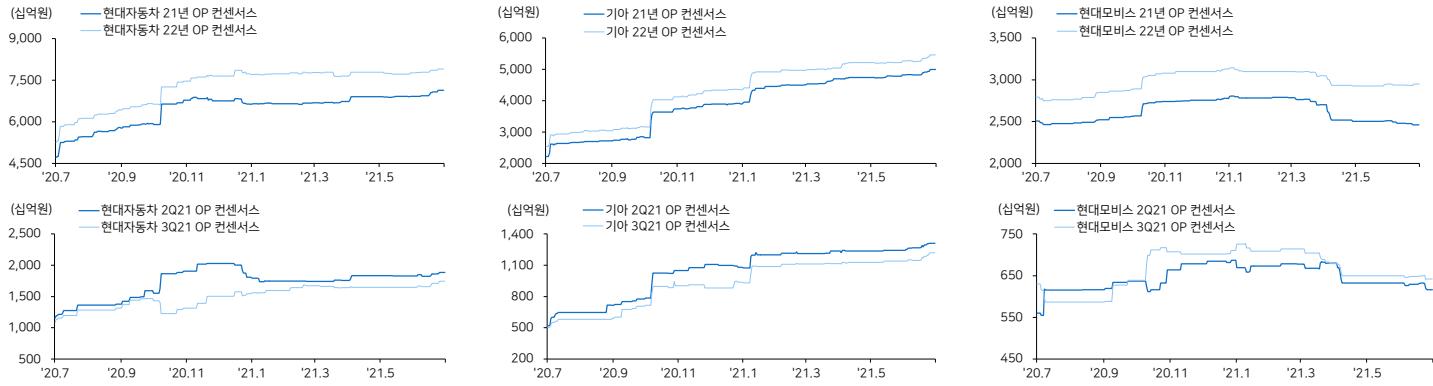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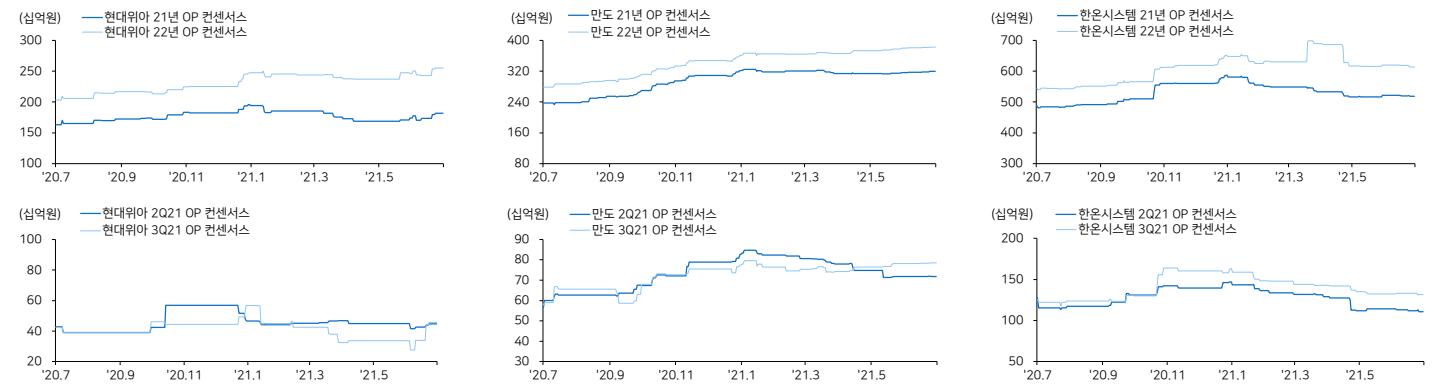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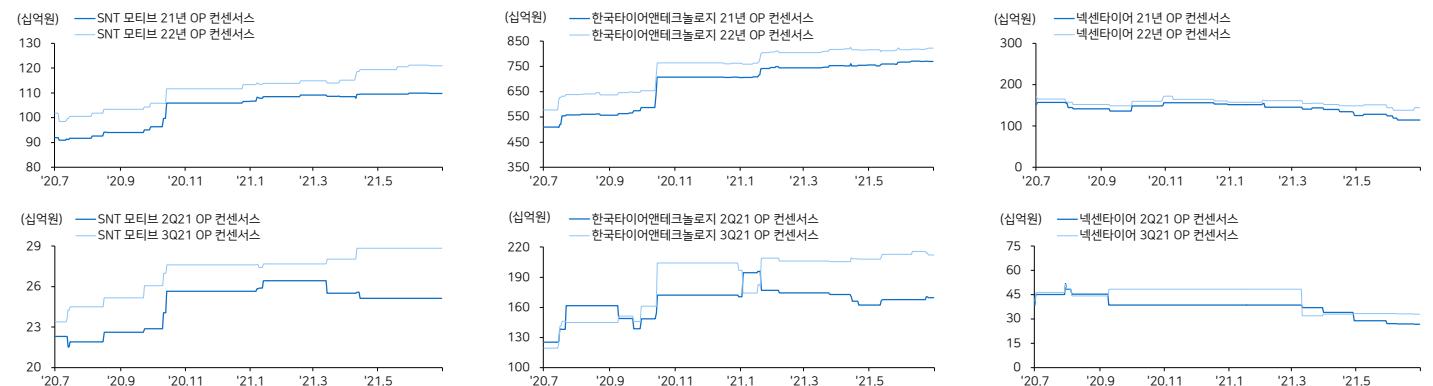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기아, 상반기 러시아 19만9414대 판매…1위 라다 '턱밀 추격' (The GURU)

현대차·기아는 상반기 러시아 시장에서 총 19만9,414대를 판매하며 러시아 시장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나란히 차지함. 양사 합산치는 러시아 로컬 브랜드 라다(20만219대)와 805대 차이에 불과하여 빠르게 추격하는 모습.

<https://bit.ly/3iw7dWT>

수소로 달리는 '승합차·고속버스' 나온다…현대차 FCEV '3→6종' 확대 (전자신문)

현대차는 오는 2023년까지 수소차 라인업을 현행 3종에서 6종 이상으로 확장하여, 세계 최초로 수소로 달리는 승합차와 고속버스를 내놓을 예정. 2년 연속 글로벌 수소차 점유율 1위를 차지하던 승용차에 이어 상용차까지 시장 선점에 나선다.

<https://bit.ly/2W3gvSJ>

자동차-IT 업체간 인력 철탈전 치열 (파이낸셜뉴스)

GM 20일 리프트, 니오, 배달의민족 업체 포스트메이트 임원 출신들을 산하 베델·운송, 서비스 사업 부문 경영진으로 고용, 스텔란티스 역시 아마존 차출주행사업부 부사장 등을 영입하는 등 자동차 업체와 IT업체 간 인력 생활전이 치열함.

<https://bit.ly/3ezx27I>

테슬라, 6월 중국 생산차 판매량 29% 급증…'판촉 주호' (뉴시스)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출고한 승용차 모델3와 SUV 모델Y의 판매량은 전월보다 29% 증가했고 4월보다 2배 이상 많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함. 모델3의 판매 호조는 우대용자와 계약금 감액 등을 중심으로 하는 판촉이 주호한 것이 크게 작용.

<https://bit.ly/2V34lZI>

한 달 만에 1만대 '돌풍'…인도서 대박난 현대차 SUV (한국경제)

현대차 인도법인은 알카자르가 지난달 18일 출시된 뒤 5,600대 가량 팔렸다고 19일 발표함. 이를 포함해 한 달여간 총 판매 및 예약 건수는 1만 1,000대에 달함. 차량이 출시된 지난달엔 3,103대로 준중형 SUV 중 가장 많이 판매됨.

<https://bit.ly/3kEOo6E>

신차 개발부터 시승까지…草업계 '메타버스' 열풍 (MTN)

가상현실이 세계인 메타버스가 최근 산업계 전반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이를 활용해 시승회를 열고 신차 개발을 하는 등 차동자업계에도 메타버스 활용이 확대. 원전자율주행 같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https://bit.ly/3zkD4kc>

디디추싱이 불러온 중국 차량공유 업계 지각변동 (아주경제)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의 신규 회원 유치와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가 당국 제재로 인해 금지되면서 중국 차량공유 업계가 다시 표동하는 중. 메이퇀, 가오더추싱, T3, 차오타오주싱 등은 운전자와 승객 모집에 인센티브 제공 시작.

<https://bit.ly/36Qmx54>

GM, 충전소 공用 프로젝트 '얼티엄 차지 360' 사업 확대…'라스트마일' 적용 (The GURU)

GM의 지원 아래 다수 전기차 충전업체들이 연합체를 이루는 충전소 공용 프로젝트 '얼티엄 차지 360'을 라스트 마일 물류 사업 '브라이트드롭'에 활용키로 함. 이를 업체가 복리 지역에 제공하는 충전기는 약 6만개에 달함.

<https://bit.ly/3y6zlG5>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